

## 2021년 포브스 400대 미국 부자 (The 2021 Forbes 400 List Of Richest Americans)



이승호,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 <중앙경제>, 2021. 10. 7.

1917년 창간된 ‘포브스(Forbes)’는 매년 여러 분야의 순위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미국의 경제 잡지이다. 포브스가 선정하는 분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The World’s Most Valuable Brands),’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 등이 있다.

최근 포브스는 ‘2021년 포브스 400대 미국 부자(The 2021 Forbes 400 List Of Richest Americans)’ 순위를 발표했다. 올해는 특히나 대형 기술기업과 암호화폐 기업가들이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크게 재산을 늘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미국의 부자 1위는 아마존(Amazon)의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가 차지했다. 제프 베이조스는 순자산이 지난해보다 220억달러 늘어난 2,010억달러인데 특히, 포브스 부자 순위에서 개인 자산이 2,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베이조스가 최초이다. 2위는 테슬라(Tesla) 일론 머스크(Elon Musk) 최고경영자(CEO)가 차지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 상승에 힘입어 자산이 1,905억달러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한다.

포브스는 이번 발표에서 흥미로운 점으로 미국 400대 부자들의 관대함(generosity)을 꼽았다. 총 자산의 20% 이상을 기부한 부자는 줄었지만, 총 자산의 1% 미만을 기부한 부자는 127명에서 156명으로 늘었다. **KMIF**